

77주기 맞은 여순사건...국가 차원 배·보상 서둘러야

2021년 제정 특별법 희생자 지원 한정 전남도, 고흥화 유족 생활비 지급 추진
他시·도 거주 유족 60% 재정지원 전무
道 “진상보고서 속도·특별법 개정 건의”

‘여수·순천 10·19 사건’이 올해로 77주기를 맞은 가운데 희생자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지급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국가 배·보상이 지연되면서 전남도가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을 선제 추진 중이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상 전남 외 지역 유족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여순사건 유족들의 고통화가 심각하고 최근 법무부도 여순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책임 인정 소송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희생자·유족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을 비롯해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쌍둥이 사건으로 여순사건의 직·간접적 원인인 된 제주 4·3사건의 경우 2000년 제주4·3사건



‘은빛 역사’ 사이로 ‘광주 서창역새축제’가 시작된 16일 오후 시민들이 은빛 역사 속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영산강변 역사길에서 추억을 남기고 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서창역새축제는 19일까지 서구 극락교·서창교 나눔누리숲 구간에서 SG 다이닝, 명패리기 대회, 나눔누리 노을530, 선율이 흐르는 역사길, 두박두박 역사탐험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2003년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발간, 2022년 첫 국가 보상이 이뤄졌다.

이와 달리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 이후 4차례나 발의됐으나 이념 대립 등의 이유로 수차례 무산되다 20년이

지난 2021년에서야 제정됐다. 이로 인해 희생자·유족 결정과 진상규명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3차례에 걸친 희생자·유족 신고 결과, 총 1만879건(희생자·유족 8천209건, 진상 규명 2천610건)이 접수됐다.

중앙위원회는 지난달 말 기준 1·2차 신고 접

수 7천465건 가운데 3천776건(50.6%)에 대한 심사만 완료한 상황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 조사 완료 기한은 2026년 10월 5일까지다. 진상조사보고서는 조사 종료일로부터 6개월 내인 2027년 4월 4일까지 작성을 완료해야 한다. ▶2면에 계속

/양시원 기자

‘2025 소금박람회’ 오늘 막 오른다

19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

전시·맛·공예 ‘체험형 축제’ 주목

전남도가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목포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2025 소금박람회 ‘짬! 소금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해로 제17회째를 맞은 소금박람회는 국내 최대 천일염 산지인 전남도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천일염 행사다. 특히 단순 전시·판매

에 머물렀던 기존 행사의 틀을 벗어나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축제로 새롭게 태어나 주목받고 있다.

첫 날에는 한복을 입고 춤을 추듯 붓글씨를 쓰는 김소영 작가가 ‘간간이 빛은 전남의 품격, K-SALT’라는 슬로건으로 대형 붓글씨 캘리그래피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이어 천일염의 역사와 가치,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샌드아트 영상이 상영돼 감동을 더하고, 그룹 에이플러스와 가수 린의 축하공연이 화려하게 무대를 장식하며 축제의 서막을 연다.

18일에는 이원일 셰프가 천일염을 활용한 유자 메이플 소금 팬케이크 쿠키쇼를 선보인다. 19일엔 최태성 강사가 들려주는 ‘역사 속 소금이야기’ 인문학 콘서트가 진행돼 천일염의 문화적 의미와 인류사 속 가치를 흥미롭게 풀어낸다.

이 밖에도 축제 기간 동안 ‘천일염 퀴즈쇼’, ‘천일염 100g 무게 맞추기’, ‘천일염 찰기’ 등 전남 천일염 상품을 갖고 펼쳐는 ‘단짠 기네스’와 지역 버스킹 공연팀이 참여하는 ‘단짠 콘서트’를 선보여 축제의 흥을 더한다.

행사장 곳곳에는 5개 테마관이 상시 운영된다. K-SALT·생활관에서는 천일염의 생산과정과 이력제, 생활 속 천일염 활용 제품을 소개하고, 미식관에서는 소금팝콘·소금쿠키·소금 아이스크림 등 간편 미식체험이 펼쳐진다.

체험관에서는 소금시계·소금전구·소금물 자동차 만들기 등 과학과 창의가 결합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박영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산 천일염은 풍부한 미네랄과 깊은 감칠맛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자랑하는 명품 소금”이라며 “전남 천일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찾는 K-SALT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거침없는 코스피

3,748.37 마감...또 사상 최고치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700선을 돌파했다. 2거래일 연속 장중·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도 동시에 경신하면서 K-증시에 새 역사를 썼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1.09p(2.49%) 오른 3,748.37로 장을 마감했다. 이로써 전날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3,659.91)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3,657.28)를 동시에 갈아 치웠다.

지수는 1854p(0.51%) 상승한 3,675.82로 출발해 장 초반 3,700선을 넘어섰고, 한동안 3,720선 주변에서 상승 폭을 조절하다가 오후 장 마감 직전 3,750선 근처에서 거래를 마쳤다.

특히 기관과 외국인은 이날 코스피에서 각각 8천134억원, 6천642억원을 대량 순매수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견인했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등 반도체와 자동차 대형주의 동반 랠리가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다.

이같은 결과는 반도체 산업 호황과 더불어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증시에는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 기대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통화완화 정책 언급 등 각종 호재가 남아있어 추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69p(0.08%) 오른 866.41에 장을 마쳤다. /임채만 기자

Today

광주법원·검찰 국감 어떤 답변 나올까 6면

키워드로 보는 영화이야기·'공존' 14면

동인선생 역경 강좌·수천수(水天需) 15면

2025 장성 황룡강
가을 꽃 축제

황룡강 가을 花담 빛으로 물드는 이야기길

2025. 10. 18.(토) ~ 10. 26.(일)
황룡강변 일원

주최 : 장성군
주관 : 장성군축제위원회